

2024
브릿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2024 BRIDGE
Annual Report

BRIDG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DUCATION TRANSFORMS LIVES

2024
브릿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2024 BRIDGE
Annual Report



BRIDGE MAKES IT HAPPEN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말라위

EDUCATION TRANSFORMS LIVES

BRIDGE MAKES IT HAPPEN

교육이 삶을 바꿉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나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면,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나와 가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이렇듯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2억 5,10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1억 6,0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전 세계 성인 100명 중 13명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의 앞에 놓인 것은 가난과 차별, 소외의 벽입니다.

UN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중 네 번째 목표는 누구나 언제든지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브릿지가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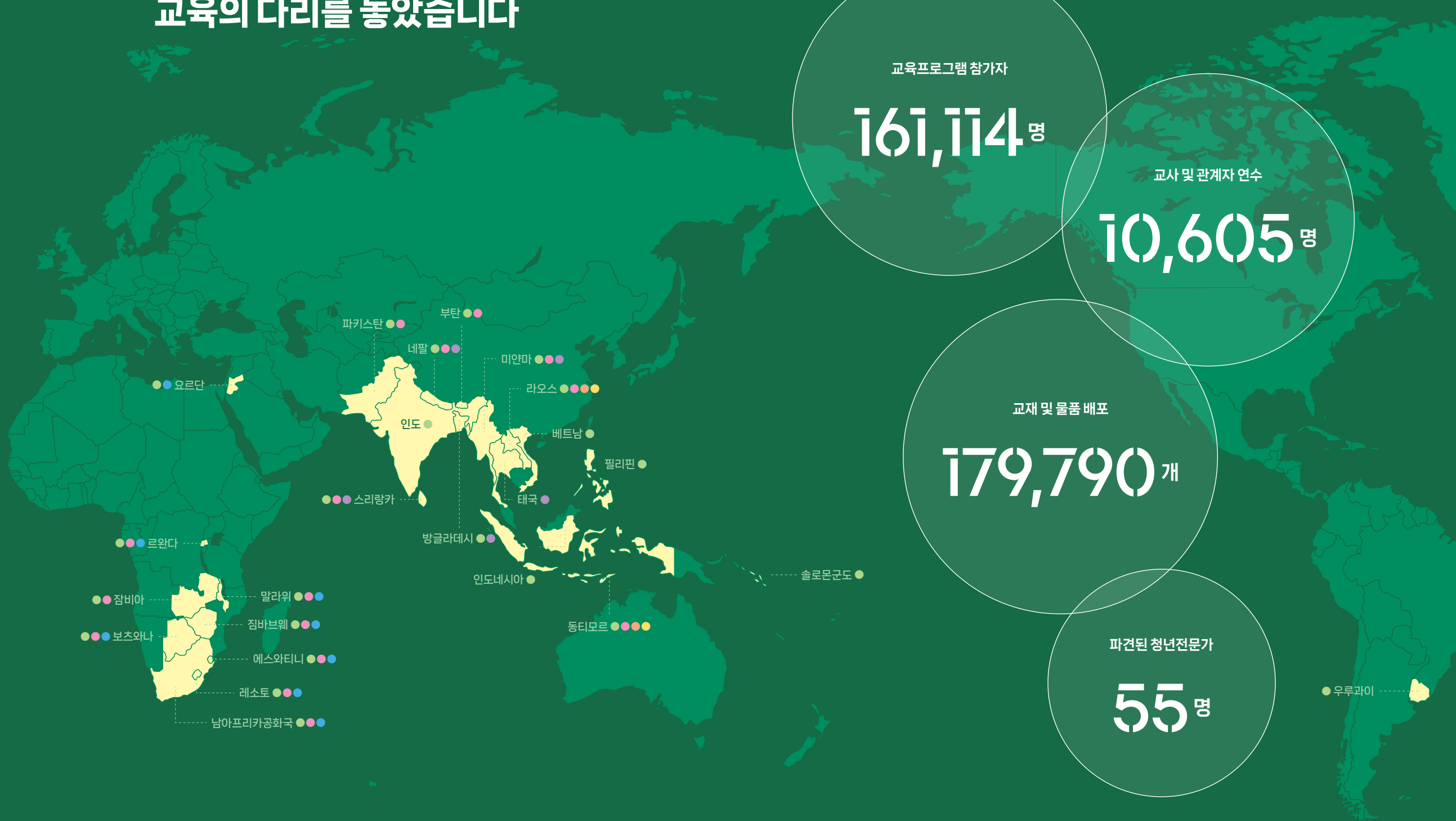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민의 손에 빵이 아닌 책을 쥐어준 것이 유네스코였고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을 통해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우리처럼
누구든 배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구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브릿지는 지난 15년간 (2010-2024)

24개 국가에서 171,719명을 위한
교육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 문해 ● 기초직업 ● 학력인정 ● 영유아 ● 기후변화 ● 과학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161,114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605명

교재 및 물품 배포

179,790개

파견된 청년전문가

55명

브릿지가 주목하는 사람들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교육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이처럼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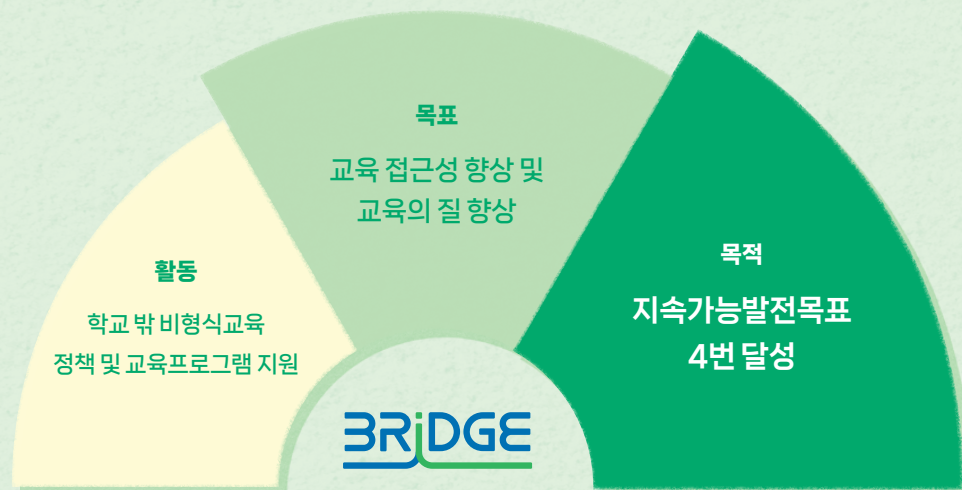
학교에 다닌 적이 없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



문해력이 부족해 빈곤에 시달리는
비문해 성인

브릿지가 이루는 변화

브릿지의 목표는 배움의 기회가 공교육의 테두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UN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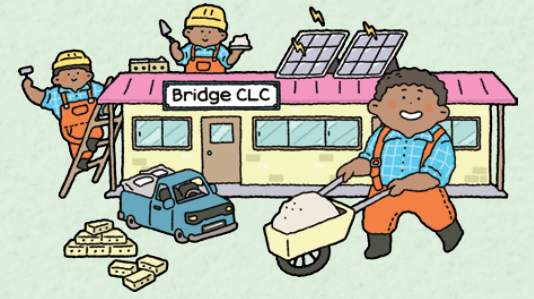


브릿지가 변화를 만드는 방법



정책 지원

비형식교육 분야 정책과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하여, 협력국의 비형식교육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지역학습센터를
건축·개보수하여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사 역량 강화

지역학습센터 교사와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비형식교육 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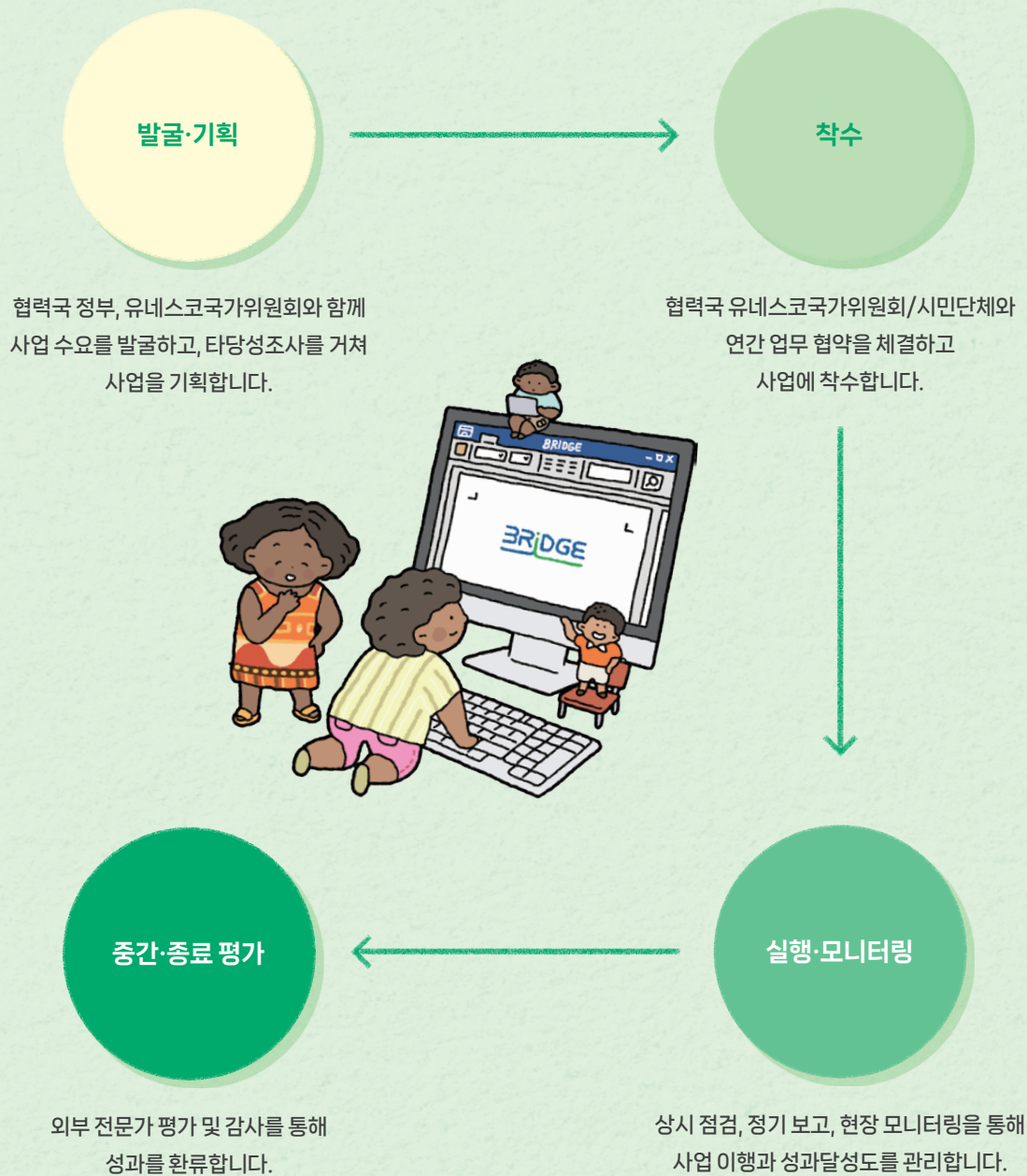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학력인정과정, 직업기술교육 등
다양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와 교육물품을 제공해 소외계층의
기초학력과 자립역량을 증진합니다.

브릿지를 만드는 과정

브릿지 프로그램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발굴·기획 ▶ 착수 ▶ 실행·모니터링 ▶ 중간·종료 평가]로 구성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브릿지와 함께하는 파트너

브릿지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합니다. 학교 밖 교육
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협력해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브릿지는 교육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이행을 위해
타 부처와 소통하며 정부 차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력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을
책임집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계획을 세운 뒤,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예산을
집행·보고합니다.

브릿지국가위원회

협력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기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습니다.

협력국 지역사회

사업의 수혜자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협력국 교육부

사업과 자국 교육 정책이
부합하도록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성과가 확산되도록 합니다.

협력국 시민단체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실행합니다.



브릿지가 걸어온 길

브릿지의 시작

1999년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자선공연.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무대로 모인 수익금이
'삼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기금'으로
조성되어 2000년 개발도상국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브릿지의 시작



이후 10년간 교육 지원을 이어가며,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해 '교육은 기회의 다리'라는 뜻을 담은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10년 아프리카 소외지역에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청년활동을 파견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그리고
2012년 아시아의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기관과
협력한 '브릿지 아시아'를 통해 지역학습센터 기반
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2011-2015)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브릿지의 성장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브릿지를 교육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전환했고, 2014년부터는 일반 대중 대상 후원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협력국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브릿지 워크숍'을 시작했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제사회-현지 정부-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협력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교육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브릿지의 도약



그렇게 쌓아온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더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브릿지 2단계'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3개국에서 시작된 브릿지 2단계는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뻗어나가
7개국에서 지역학습센터를 넘어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비형식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브릿지.
브릿지는 오늘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브릿지의 2024년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147 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20,528 명



교재 및 물품 배포

26,684 개

(교보재, 책걸상, 문구류 등)



BRIDGE

사업대상국가

7 개국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스리랑카



요르단



파키스탄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17 명



비형식교육 정책 지원

2 개국

(말라위, 부탄 교육과정 개발)

사업만족도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사업 참여자 280명 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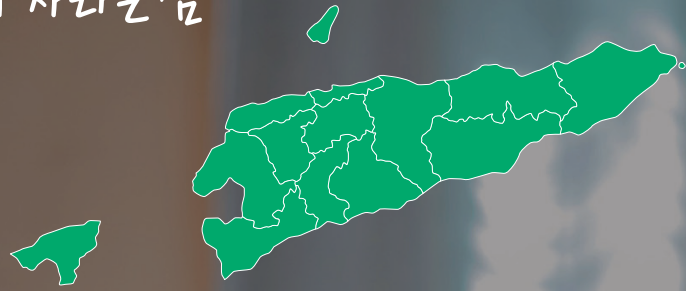
2024.11

사업에 만족하는 참여자

96.4%

바다와 산의 나라, 배움이 자라는 섬

동티모르



지역학습센터 설립

2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15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학력인정, 컴퓨터, 기초직업훈련)

2,663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52명

교재 및 물품 배포

2,921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지 불과 스물세번째 해, 교육으로 젊은 동티모르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마지막 2개 센터를 완공해 총 15개 센터를 건립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역학습센터에서는 매년 2,500여명이 글을 배우고 외국어 및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학습자 407명이 초등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릿지 × 사람들

라플루바 청년의 꿈이 피어나는 지역학습센터

마나투토주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Q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없어서, 라플루바 지역의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 안에 학습센터가 생겨서 더 쉽게 한국어, 영어,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됐죠. 이 건물은 인도네시아 통치 시절 우체국이었는데, 독립 이후엔 경찰서로 쓰이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2022년에 라플루바 지역민들에게 비형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센터로 지정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개보수가 시작됐고요. 보수 공사 도중 자재비가 오르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멋진 공간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올리비오 소아레스 Olívio Soares

Q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 지역학습센터에서 한국어, 영어, 기초 컴퓨터 기술을 배운 청년들은 시험을 보거나 국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동티모르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어 교실의 인기가 많아졌어요. 우리 센터에 라플루바 출신 한국어 선생님도 계셔서 이해하기 쉽게, 또 효과적으로 가르쳐주신 덕분에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요. 이렇게 학습센터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지역 당국이나 마을 주민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Q 지역학습센터에 대한 센터장님의 기대와 희망을 나눠주세요.

지역학습센터의 효과는 정말 분명해요. 양질의 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 기술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비문해 인구를 줄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해요. 저는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가 앞으로 전국 어떤 센터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곳이 되도록 잘 운영해 나가고 싶어요. 우수한 센터로 소문나 다른 지역 센터에게 모범 사례로 교훈을 전달하는 센터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바란다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오지 지역에도 이런 학습센터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술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 청년 학습자들

꺼이 막 히엔! (나는 배우는 게 좋아!)

라오스



지역학습센터 운영

30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1,116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60명

교재 및 물품 배포

3,700개

라오스 교육부가 전국에 설립한 340개 센터는 브릿지가 개발한 지역학습센터 지침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그 중 산간오지에 위치한 30곳에서 학력인정교육, 문해교육,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법 연수를 받아 수업을 진행합니다. 라오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워크숍은 더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브릿지 × 사람들

높은 산을 넘어 내게 찾아온 두번째 학교

루앙프라방주 씩케오 지역학습센터 중등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빌라손 Vilasone

Q 지역학습센터 학력인정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빌라손 마을 방송에서 저녁 수업이 있다는 걸 듣고 낮에 가족 일을 도우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도 제가 계속 공부하길 바라셨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Q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빌라손 저희 집은 형제가 여섯인데, 교육비를 낼 수 없어 초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없었어요.

님 저희 가족도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 값이나 통학비도 부담스러웠고, 중학교는 집에서 너무 멀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러웠고, 나도 언젠가는 다시 공부하고 싶단 희망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Q 학력인정교육을 받으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빌라손 공부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요즘엔 수학이 제일 좋아졌어요. 동생들 숙제도 봐주고, 부모님이 공문서나 안내문을 보실 때도 도와드릴 수 있어 뿌듯해요.

님 저는 제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되찾은 게 제일 커요. 시장에서 엄마 계산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수업이나 가족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하게 됐어요.

Q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가지고 있나요?

빌라손 중등과정을 마치면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마을에 정비소가 별로 없어서 가게를 차리면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님 예전의 저처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공부를 포기했던 제게 길을 보여준 지역학습센터 선생님처럼요.



님 Nim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교육으로 뛰다 말라위



지역학습센터 운영
4 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방과후교육, 유아교육)

2,324 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0 명

교재 및 물품 배포

13,000 개

비형식교육 전문학사 과정 운영

1 개

말라위 지역학습센터 4곳의 성인문해교육, 유아교육,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아동·청소년과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 읽기, 쓰기, 산수 능력이 자라고, 생계를 위한 기초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및 지역 관계자 대상 교수법 연수를 실시하고, 교재와 교육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양질의 비형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말라위의 내재적 역량을 기르고자 마고메로대학교와 협력하여 비형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브릿지 × 사람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마고메로대학교 비형식교육 전문학사과정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Q 비형식교육 전문학사과정에
등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클라라 입학 전에는 비형식교육이 뭔지 제대로 몰랐는데,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삶을 바꾸는 교육이구나.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닐리 저는 할머니가 지역학습센터에서 글을 배우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전공을 고민할 때 찾아보니 비형식교육이 바로 제가 하고 싶던 그 일이더라고요. 아직 연구도 덜 된 분야라서 제가 뭔가 바뀔 수 있겠다 싶었죠.



아닐리 므완디라 Anily Mwandira



클라라 엠치미카 Clara Mtchimika

Q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클라라 학교에서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를 이론으로 배울 땐 솔직히 '이게 마을에서 통할까?' 싶었는데, 현장에서 보니 진짜로 삶을 바꾸는 도구였어요. 한번은 늘 거수로 지도자를 뽑던 마을 회의 자리에서, 수업 때 배운 민주적인 방식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다음엔 그렇게 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감동했죠.

탈란디라 학교에 있을 땐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동거나 리더십 부족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교육은 정보 전달을 넘어서, 결에서 이끌고 응원하는 거란 걸 알게 됐어요.

Q 10년 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나요?

클라라 저는 조용한 시골의 지역학습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문해교육을 끝낸 어르신이 자기 이름을 적고 웃으며 고맙다고 하시는 장면이 제가 매일 보고 싶은 미래예요.

탈란디라 정부와 협력해 전국에 문해교육을 확대하고, 강사와 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도 가난이나 나이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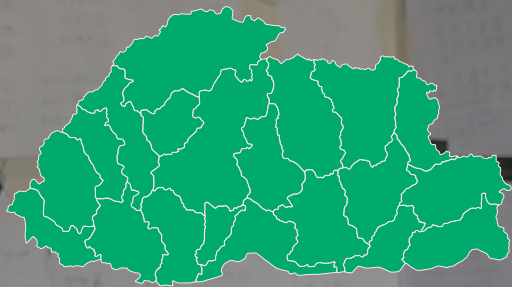
아닐리 저는 NGO를 만들어서 말라위 곳곳에 비형식교육을 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문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그 단어가 희망의 상징이 되게 하고 싶어요.



탈란디라 므왈리자 Talandira Mwalija

드룩*,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날다

부탄



비형식교육정보관리체계 운영

1종

지역학습센터 개보수 및 운영

29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기초직업훈련)

3,159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400명

사업 초기에 구축한 비형식교육 전략과 비형식교육정보관리체계(NFE-MIS)를 기반으로 문해 및 직업훈련 교육과정과 교수지침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실을 개보수하며 실습 장비를 설치하여 양질의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부탄 사업은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5년에는 기존의 성과가 현지 주도로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이전을 돕게 됩니다.

*부탄 신화에 나오는 천둥 용으로, 부탄의 국가 상징

브릿지 × 사람들

우리가 만난 브릿지: 공동체를 바꾸는 교육의 힘

유네스코부탄위원회의 브릿지 사업 담당관들의 이야기입니다

Q 사업 전 부탄의 교육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펠덴 부탄은 다양한 교육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교육 기회를 얻기 힘들었고, 배우기 시작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여성과 농촌 지역 주민의 문해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소외계층이 비형식교육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강사의 역량을 키우며,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학습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브릿지의 핵심이었어요.

Q 사업기간 중 경험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펠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학습센터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많은 학습자들이 이탈했어요. 정부 개혁으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땐 현장 활동이 지연되기도 했죠.

잠양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하고, 영어 과목과 신행 재봉기나 제빵용 오븐 등 직업훈련 장비도 도입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다시 참여를 이끌어 냈어요.

Q 사업이 학습자들의 삶에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펠덴 동부와 남부 지역까지 센터를 확대한 덕분에 8천명이 넘는 성인이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지방정부도 비형식교육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고요.

잠양 특히 여성 학습자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26명이 재봉이나 제빵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고, 50명은 식당과 카페에 취업했고, 90명이 지방정부 선거에서 마을 대표로 당선됐죠. 학습자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바꾸는 교육의 힘을 눈으로 본 순간들이었어요.



펠덴 Pelden

Q 사업을 종료하는 소감과 앞으로 부탄 정부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잠양 사업이 끝나도 NFE-MIS나 블렌디드 러닝, 직업교육 모델은 부탄 정책에 적용될 거예요. 브릿지가 많은 이들의 삶에 남긴 변화는 제게 큰 자긍심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펠덴 교육부도 지역정부, NGO와 협력해서 지역학습센터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에요. 소외계층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 가야겠죠. 모두의 배울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잠양 드룩다 Jamyang Drukda

브릿지 부탄을 종료하며

부탄은 경제적, 지형적 제약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인구가 많아 학교 밖 비형식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강사와 학습 자료의 부족, 미흡한 데이터 관리, 한정된 직업훈련 과목 등의 문제로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비형식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부탄 사업은 먼저 비형식교육 교육과정과 교수지침서를 개정하고, 전국 지역학습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교수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을 보수하고, 직업훈련용 실습 장비와 ICT 기자재를 설치했습니다.

나아가 효율적인 교수학습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인 비형식교육정보관리체계(NFE-MIS)를 국가 최초로 개발하여 전국 지역학습센터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글을 읽고 쓰는 법조차 몰랐던 이들이 이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지역 대표로 선출되어, 가족과 마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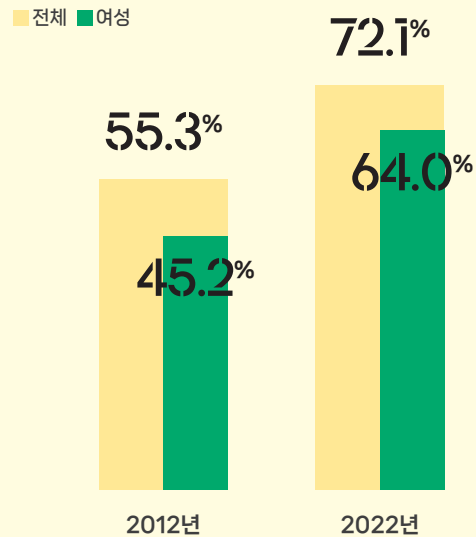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비문해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탄 교육부의 정책을 직접 지원한 브릿지 부탄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공립학교, 지역학습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국적인 파급력을 발휘함으로써 부탄의 비형식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국가 최초 비형식교육정보관리체계 개발 및 도입

부탄의 성인 문해율 향상

* 부탄 정부 5년 주기 통계조사 근거



비형식교육 기회 확대

전국 지역학습센터 지원

6개소 신축
29개소 환경개선 및 운영

29개

교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비형식교육 분야 공무원,
센터 연계 학교 교사 등

3,938명

문해교육(종가어, 영어)과
기초직업훈련(재봉, 목공, 제빵 등)
프로그램 제공

38,362명

창업한 학습자

326명

취업한 학습자

50명

마을 대표로 선출된 학습자

90명

* 2020-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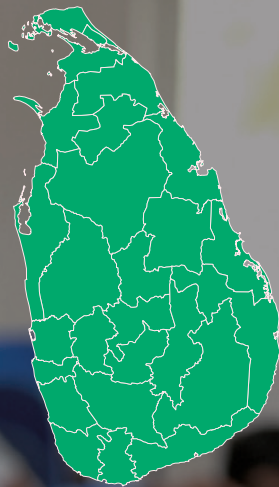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단지 농부나 할머니가 아니라 ‘학습자’라고 느꼈어요. 길에서 표지판을 읽고, 이름을 스스로 쓰고, 손주들의 숙제도 도와줄 수 있게 되면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추자강 지역학습센터 학습자
린첸 장모 Rinchen Zangmo

교실 속 작은 진주들, 인도양을 밝히다

스리랑카



지역학습센터 설립

3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21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중등교육, 디지털교육)

5,800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70명

디지털학습 기기 보급

20대

스리랑카국립교육원과 함께 21개 지역학습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문해 및 중등교육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직업훈련 및 진로설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소자와 약물회복자에게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2024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태블릿 기반 기초교육으로 디지털 학습 경험이 전무한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공했고, 비형식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 전체를 포용적인 학습공동체로 바꾸었습니다.

브릿지 × 사람들

오픈 태블릿, 오픈 스쿨!

감파하구 시두와 지역학습센터의 학생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닐루시 아누타라 Nilushi Anuththara

Q 수업을 통해 스스로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닐루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Q 태블릿을 활용해 가르칠 때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수닐 이전에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소극적이거나 자주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태블릿을 활용한 이후로는 참여율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상호작용 중심의 콘텐츠가 확실히 학습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두가 처음 사용하는 앱이라 낯설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저 역시 이 기술을 더 능숙하게 다루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Q 처음 태블릿 기기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닐루시 태블릿은 처음 써 봤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 신기한 걸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렵게 느껴졌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금방 익숙해졌어요.

Q 태블릿 수업은 기존 수업 방법과 어떤 점이 달랐나요?

닐루시 태블릿 수업은 연필과 종이만 쓰는 수업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어요. 태블릿 수업을 받기 전에는 공부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배우는 것과 노는 게 섞여 있어서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죠.

Q 태블릿 수업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본인의 소감을 나눠 주세요.

수닐 동료 교사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현대적인 수업 방식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었어요. 스크린 사용 시간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지만, 앱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다들 긍정적이었죠.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습자 중심의 포용적인 수업 방식을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저 역시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학습자들이 태블릿 덕분에 자신감 있게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다시 느꼈어요. 디지털 수업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도 큰 의미를 줘요.



수닐 노르리스 Sunil Norriss

책 읽는 소리로 페트라를 깨우다 요르단



도서낭독 세션
4,935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3,042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39명
교재 및 물품 배포
4,602개

요르단 NGO 타기어와 협력해 비형식 문해교육 모델인 We Love Reading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여성들이 독서교육 앰배서더로서 자녀와 이웃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이들의 낭독 활동은 아동의 문해력 향상과 정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활동 경험은 디지털 연수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었고, 기후변화와 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동화책을 제작·보급해 읽기 활동의 깊이와 너비를 키웠습니다.

브릿지 × 사람들

모든 아이가 책 읽는 마을을 만들래요!

We Love Reading 독서교육 앰배서더들의 이야기입니다



라자 카난 Rajaa Kanaan

Q 지역사회에 아동의 문해력이나 독서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나이마 아이들의 교육적, 문화적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느껴졌어요.

라자 예전엔 책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어요. 책이 비싸고 읽을 공간도 없어서 독서가 어렵게 느껴졌죠.

샤하드 어릴 때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부모님이 많았어요. 아동용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책 고르는 법이나 읽어주는 법도 잘 알려지지 않았죠.



샤하드 압둘라 Shahad Abdullah

Q 어머니나 지역 여성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 요르단에서 왜 효과적일까요?

샤하드 엄마가 잠자리에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책 읽어주는 모습은 우리 공동체에서 참 익숙하고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방식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서적 연결이 깊어지니 학습 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라자 낭독은 글을 읽는 걸 넘어 감각을 깨우고 감정을 나누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듣고 따라하면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자라고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Q 독서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자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니까 서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려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샤하드 아이들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발표나 대화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앞으로 이런 변화가 계속되도록 언제나 아이들 곁에 책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마음껏 상상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마 저는 집마다 책장이 있고, 동네마다 독서교육 앰배서더가 있는 미래를 꿈꿔요. 독서가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일상이 되길 바라요.



나이마 알하미다 Naima Al-Hamidah

꿈을 위한 교육, 진다바드! (파이팅!)

파키스탄



지역학습센터 운영

48 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기초직업훈련)

2,424 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96 명

파키스탄 NGO 분야드문해협의회와 함께 펀자브 주 48개 지역학습센터에서 농촌 지역 여성에게 문해교육과 기초직업훈련을 제공했고, 이 중 일부는 소규모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들이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사후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르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은 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동식 도서관, 디지털 허브, 권리인식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브릿지 × 사람들

내 이름을 처음 쓴 날, 잊을 수 없어요

파키스탄 지역학습센터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Q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크라 다른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느질도 배우고, 글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과 독립심이 생겼어요. 배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느끼게 됐죠.

Q 지역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크라 처음으로 책을 혼자 읽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처음 써본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면서 보람도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변화죠.



이크라 후세인 Iqra Hussain

Q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된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크라 센터의 교육이 가족의 생계로 이어져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바느질과 자수의 기초부터 전문적인 디자인까지 배웠고, 소셜미디어 활용법도 익히면서 제 세상이 정말 넓어졌어요. 이제는 WhatsApp으로 맞춤 주문을 받고, Instagram으로 홍보도 하며 점점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있어요. 집에서 소규모 재봉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Q 이동식 도서관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님라 우리 학교에 오는 분야드 선생님이 이동식 도서관을 소개해 주셨어요. 학교에 다양한 책을 직접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인데, 읽기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교과서 말고 다른 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그날이 항상 기다려지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워요.

Q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이 있나요?

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우르두어 만화책 '뜨르나와 두브나(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예요. 왜 어떤 물건은 뜨고, 어떤 물건은 가라앉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바닷속 생물들 이야기도 나와서 정말 재미있어요. 앞으로는 역사, 환경, 건강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님라 나딤 Nimra Nadeem

배움이 멈추지 않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다양한 이유로 공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소중한 기회의 다리가 되어 주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2024년 브릿지 6개 국가에서는 147개의 지역학습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중 7곳은 2024년에 처음 열리거나 새단장을 하여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가까운 배움터를 원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티모르 15개

모수 Mosu
아투아벤 Atuaben
쿠다 울룬 Kuda Ulun
마눌레우 Manuleu
하둘리아 Hatulia
하부라스 와투칼보 Haburas Uatucarbau
로만 바 파투루 Roman ba Faturu
크리아티부 Kriativu
크눅 바 모리스 Knu'uk ba Moris
마우메타 Maumeta
리파우 레오아 Lifau Raeoa
라플루바 Laclubar
발로어 로스팔로스 Valor Lospalos
코코렉 Kokorek
엘로이 아타우로 Eloí-Atauro

스리랑카 21개

자프나 Jaffna
미살라이 Meesalai
팔라비 Palavi
마담페 Madampe
만바우스 살리하앗 Manbaús Saalihaath
아사라피야 Asharafiyya
케타웰라 Ketawela
왓테가마 Wattagama
하톤 Hatton
바티칼로아 Batticaloa
자야위루 사마디 Jayaviru Samadhi
자야위루 세와나 Jayaviru Sevana
국립정신건강병원 NIMH
코타와 Kottawa
아문유쿨부라 Amunukumbura
시두와 Seeduwa
반다라가마 Bandaragama
톨랑가무와 Tholangamuwa
올란타왓테 Olanthawatte
칼라와나 Kalawana
리디아가마 Ridiyagama

말라위 4개

웨라 Mwera
나피니 Naphini
나미양고 Namiyango
이부즈야 Ibuluya

라오스 30개

팍 하오 Pak Hao
후오이 찻 Huoy Chit
남카 Namkha
후오이 폭 Huoy Phoc
콘 피엣 Kon Phiet
후오이 사룻 Houy Salort
사마 Sama
미사이 Mixay
시사이통 Sisaihong
기우 폭 Giew POC
씨 라렉 Si Lalek
탓 카 춤 Tat Ka Chum
씽케오 Thinkeo
폰사방 Phonsavang
사마키사이 Samakixay
파 켕 아이 Pha Keng Yai
비엥캄 Viengkham
짐 Jim
푸양 Phuyang
푸 비엥 노이 Phu Vieng Noi
방 Bang
푸오 타이 Phou Thai

켄린 Kenglin
타테 Thate
카렝 푸 Kaleng Phu
라코 Lako
싸둔 Sadun
라투옹 Latuong
라꿈 Lakhum
갈락 Kalak

부탄 29개

질넨 남가예링 Zilnoen Namgayeling
왕추 Wangchu
달라 Darla
린첸 쿤펜 Rinchen Kuenphen
자나나 Janana
카초 Katsho
멘다강 Mendhagang
홍초 Hongtsho
가사 Gasa
바조 Bajo
장테르포 Zangtherpo
젬강 Zhemgang
소남탕 Sonamthang
트롱사 Trongsa
드루제강 Drukjegang
폰초탕 Phuntshothang
삼드롭 종카르 Samdrup Jongkhar
조모상카 Jomotsangkha
겔레푸 Gelephu
추자강 Chuzagang
도로카 Dorokha
페마송 Pemashong
몽가르 Mongar
갈포이징 Gyalpoizhing
랑중 Rangjung
트림싱 Thrimshing
트라시 양체 Trashi Yangtse
룬체 Lhuentse
바트세리 Bartseri

파키스탄 48개

라힘야칸 Rahim Yar Khan 12개 CLC
쿠샤브 Khushab 12개 CLC
라호르 Lahore 12개 CLC
하피자바드 Hafizabad 12개 CLC

* 브릿지 요르단 사업의 독서교육 세션은 가정집과 마을회관 등 모임이 가능한 다양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더 넓은 교육협력을 향한 브릿지 아웃리치



대중이 참여하는 브릿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해 브릿지 협력국,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교육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협력 포럼>에서 교육협력 성과와 도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에게 브릿지와 교육협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협력 포럼 | 2024.6.25-27

브릿지 워크숍 | 2023.5.31-6.2

개발협력주간 ODA 사진전 참여 | 2024.11.25-29

개발협력주간 홍보부스 | 2023.11.21-24



청년과 함께 하는 브릿지

청년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는 이유이자, 미래의 주인입니다. 개발협력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와, 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그들에게서 직접 듣기 위해 매해 청년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개발협력을 이루어 갈 주역으로 성장합니다.

Youth Talks BRIDGE 공개행사 | 2023.6.2

청년 개발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 2024.3-6월



유네스코에서의 브릿지

194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네스코의 각종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한국의 대표 비형식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브릿지의 사례는 유네스코 회원국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브릿지 협력국의 대표가 한국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공개적으로 표함으로써, 포용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아프리카 세션 발표 | 2023.11.9
브릿지 사업 홍보 세션 개최 | 2023.11.10

제220차 유네스코집행이사회 국가위원회 회의 발표
| 2024.10.15

세븐틴·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동티모르에 지역 학습센터 2개소 건립

UNESCO
2024.05.14 오전 06:38



세븐틴(왼쪽부터)·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운데)·동티모르(가운데)

미디어 속 브릿지

소외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준 브릿지의 성과가 국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국의 국영매체를 포함한 주요 채널을 통한 미디어 보도는 협력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브릿지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지하는 인사들의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브릿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협력국 국영매체 보도

국내 언론 및 SNS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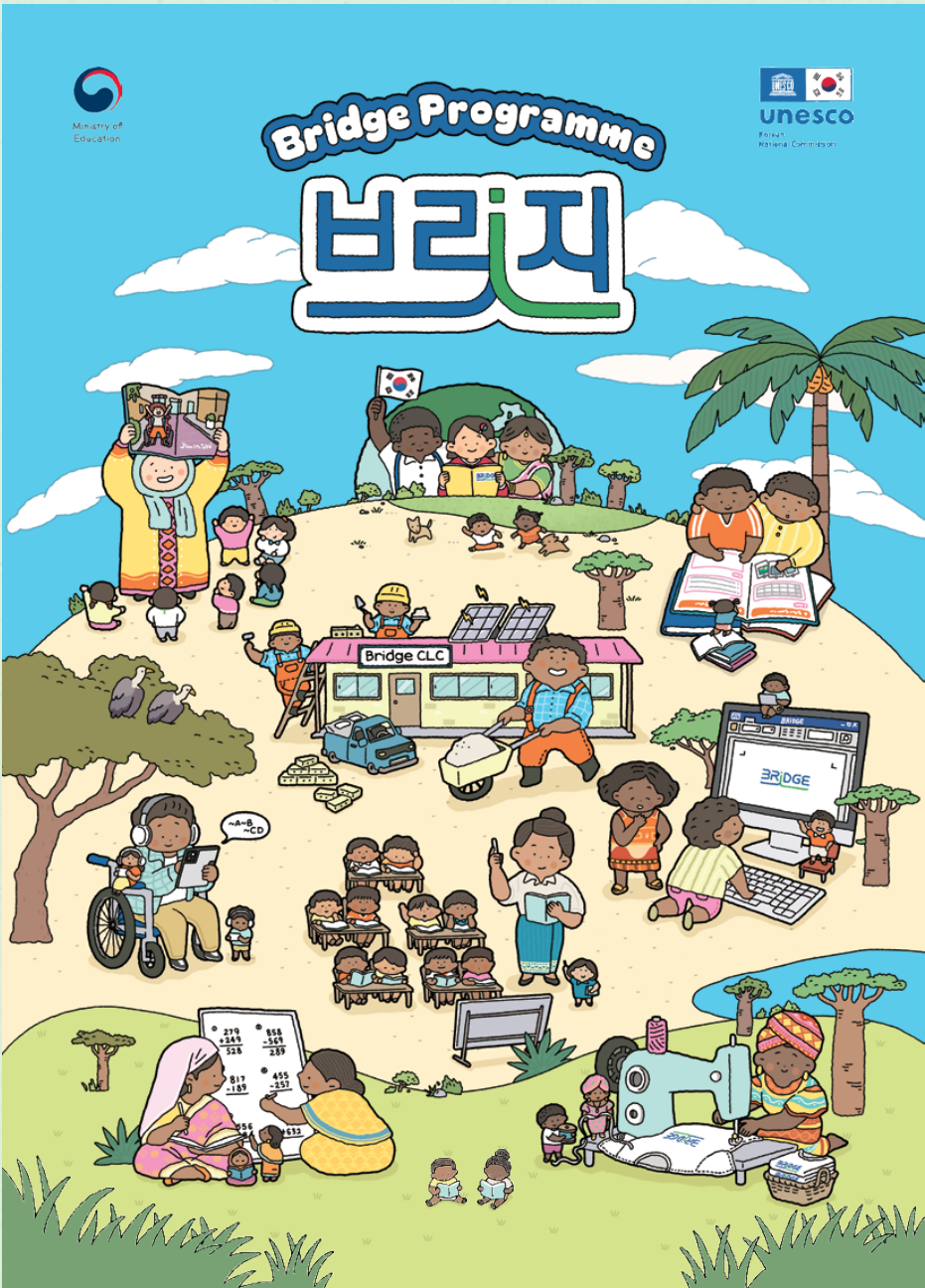
K-POP 그룹 세븐틴, 축구선수 이재성, 인플루언서 성해은 등의 브릿지 후원홍보 활동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9971
peace.unesco.or.kr



브릿지 연차보고서

www.unesco.or.kr



2016-2017 연차보고서



2017 연차보고서



2018 연차보고서



2019 연차보고서



2020 연차보고서



2021 연차보고서



2022 연차보고서



2023 연차보고서

퍼낸일 2025년 6월 25일
퍼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낸이 윤병순
지은이 이선경, 홍혜원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273
전자우편 icp.division@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번호 ED-2025-RP-2